(제46권 13호)

부활 주일 전교인 연합 예배
EASTER SUNDAY ONE CHURCH SERVICE

주후 2024년 3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양 Praise	"약한 나로 강하게"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주의 이름 높이며"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Beacuse He Lives)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Isaiah) 25:6-9, 막(Mark) 16:1-8**	정강섭 집사
찬 양 Anthem	"주가 필요해"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Is There More to The Story?"**	Pastor Will
한어 설교 Korean Sermon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세 례 식 Baptism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어린이부 특별순서 CM Special Presentat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165 장 "주님께 영광" (통일 15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망각하며,
여전히 우리는 죄성과 그릇된 욕망을 좇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어두워지며, 더욱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1: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개역개정 **막 16:6**)
"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
(NIV **Mark 16: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31 (주일)	4/1 (월)	4/2 (화)	4/3 (수)	4/4 (목)	4/5 (금)	4/6 (토)
본문	레4 시1,2 잠19 골2	레5 시3,4 잠20 골3	레6 시5,6 잠21 골4	레7 시7,8 잠22 살전1	레8 시9 잠23 살전2	레9 시10 잠24 살전3	레10 시11,12 잠25 살전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3수 오후7:30)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3:14-18)
토요 새벽기도회(4/6토 오전6:30)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시132:1-18)

지난 주일(3/24 종려/수난주일)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 50:4-9, 요 12:12-16)

부활절(Easter)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Palm Sunday)" 또는 "수난주일(Passion Sunday)"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명절에 모인 군중들이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기에, 그리고, 바로 이 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이 시작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번영의 상징"이자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번영과 승리를 기대하며,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어린 나귀를 타셨다(요12:14)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슥9:9-10)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야는 (장차) 이방 민족들에게 까지 화평을 전하며, 또한 세상 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또한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슥9:10)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더 힘을 기르고 더 강해져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병거와 말과 활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 속에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했던 병거와 말과 활을 내려놓읍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